2022년 / 1월 1주차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장 김병문입니다.
2021년의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힘차게 새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쉼 없이 오늘까지 달려오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변변한 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려 했으나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셀 수없이 많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공동체의 모든 부분을 금전적 가치로만 환원시켜왔습니다. 두 해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 여러분의 온기를 기억하며 가슴에 다시 새기겠습니다.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같은 시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묵은 해의 시련과 고난은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한국고전문화연구원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2일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이사장 김 병 문 올림

김건우 교수와 함께 만나는 孔子 이야기

지난 2021년 12월 30일, 눈보라가 몰아치는 전주의 밤을 뚫고 진행된 <목요강좌> 첫 번째 시간에 십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열띤 강의에 몸을 맡겼습니다. 앞으로 강좌는 향후 5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뜻이 있는 회원이라면 백신 접종을 전제로 참석을 협의하실 수 있으니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공자 이야기"(2강)

난신적자 - 공자와 춘추시대

◎ 일　　시 : 2022년 1월 6일(목) 18시 30분
◎ 강의시간 : 90분 내외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강　　사 :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상임이사)
◎ 대　　상 : 연구원 회원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사무국(063-286-300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가인(街人) 가다 – 1964년 1월 13일

일제강점기 열혈 인권변호사였던 긍인 허헌, 애산 이인, 그리고 가인 김병로를 일컬어 '3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두 항일투사들의 변론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긴 이들이다. '3인'은 의열단 김상옥 의사 사건으로 처음 공동 변호를 시작한 이래 일제 강점기 내내 굵직한 항일투쟁 사건에 이름을 올렸고 그들의 변론은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긍인 허헌은 해방 이후 좌익 운동가로 활동하다 미군정이 공산당 활동을 불법화하자 월북하여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인은 해방 후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주역으로 현대사에 기록되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가인 김병로는 정부 수립 이후 초대 대법원장이었고 헌법 가치를 무시했던 제왕적 대통령에게 물러섬 없이 맞섰다. 그는 사법적 정의를 통해 이승만 정부의 오만과 횡포에 막힘없는 돌직구를 날렸다.

이러한 가인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 며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라" 고 맞받은 것 역시 그였다. 그가 절대 권력자에게 받아친 이 한 마디는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원리를 상징하는 말로 법조계에 이어져 왔다. 그가 사법부 독립의 기틀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다. 막강한 권력을 쥔 이승만도 달리 손 쓸 방도가 없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권한과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백한성, 민복기, 김용철 등 그의 후임 대법원장들은 민인들의 인권보다 독재권력에 탐닉했고 진보당 사건, 사법 파동,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오늘도 민인들은 사법부에게 신뢰와 지지 대신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정치적 판결을 서슴치 않고 민인들과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하는 한국 사법부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법률가이자 민족지사 그리고 민주주의자였던 가인 김병로. 진퇴가 분명했고 명분이 확실했던 그가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1964년 1월 13일 거리의 사람, 가인(街人) 김병로가 일흔 일곱의 나이로 세상과 작별했다.